

군사정권 상징 논란 516도로, 명칭 변경 주목

30일 도민 공감 1차 토론회… 역사적 배경 논의
2018년 서귀포시 추진 반대 의견 많아 변경 무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정권의 상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516도로’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에 들어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0일 농어업 인회관에서 ‘516도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군사 쿠데타를 미화한다는 ‘516도로’ 도로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명칭 변경 요구가 나오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도 남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516도로라는 명칭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계속 유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16도로는 제주도 아라동 제주대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의 구간을 지칭하는 도로명으로 1962년부터 1969년까지 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은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516도로 명칭 변경을 위해 516도로 주변 건물주와 토지주 건축주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제시된 의견 중 80%가량이 유지 의견을 낸 바 있다.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 변경 의견 제출을 위해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건축주나 사업주, 세대주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돼도 실제로 도로명 주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첫 토론회인 만큼 이날 516도로 건설 과정과 명칭 사용 배경 등 역사적 사실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대정읍 사업 대상지.

서귀포시 6개 지구 받기반 정비 사업 13개소 대상 배수로 농로 등 설치·확장

서귀포시는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읍면동 농경지 밀집지역 6개지구 13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받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를 이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서귀포시 지역 내 상습침수 농경지, 농로가 협소한 지역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신도·동일·상

모·영락), 남원읍(위미·남원), 성산읍(삼달·신산), 표선면(가시), 안덕면(동광·감산), 동지역(토평·보목) 등 6개지구 13개소에 배수로 4.2km 설치, 농로 4.4km 확장, 농업용수 관로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받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개선되고, 농로가 확장돼 교통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설국이 된 1100고지 25일 많은 눈이 쌓인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 지사, 양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 28일 제주시청, 내달 3일 서귀포시청서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도지사가 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2026년 행정시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지켜지명 고씨살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방문은 매년 초 도지사가 직접 행정시를 찾아 도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오는 28일에

는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월 3일에는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 도지사실’과 ‘민생 경청 소통’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중 도민 관심이 높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2026년 도정 운영 방향 설명, 현장 도지사실 주요 이슈 공유에 이어 70분 간 도민과의 현안 대화로 진행되며 오 지사와 행정시장이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검토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했다.

민생 현장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지역 공통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도 실·국·단장 및 행정시 국·주무과장, 읍·면·동장 등이 배석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한다. 오소범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